

교 당 소 식

◎ 2학기 행복한 마음을 전하는 교수 순교 스케줄

2017학년도 2학기에는 단과대학별로 교수님 순교를 다닙니다.

11월 27일(월) 의과대학 / 21일(화) 치과대학, 의과대학 간호학과 / 30일(목) 법학전문대학원

◎ 명절대제 안내

12월 5일 법회는 대중사이하 모든 조상을 길이 추모하며 정례로 합동합례를 올리는 명절대제입니다. 추원보본의 예로써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축 및 찬송

교당대표: 지타원 박덕연 교무. 등단: 교당운영위원

학교대표: 우산 김도중 총장. 등단: 학교운영위원

학생대표: 양유열 부학생회장. 등단: 총학생회임원

◎ 천도재 안내

먼 타지에서 불의의 사고로 열반에 든 故 하반딘(행정언론학부 1학년), 故 부등만(어학원생)

영가를 위한 천도재를 (11월 23, 30일, 12월 07일) 같이 진행합니다.

• 일 시 : 매주 목요일 5시 40분

• 장 소 : 대학선방(송산기념관 2층)

• 종재일 : 12월 14일(목)

◎ 2학기 학교사랑&개인정진 기도

2학기 학교사랑&개인정진 기도는 송산 2층 대학선방에서 매주 화~금 오전 8시 20분에 합니다.

관심 있는 교직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매일 전서봉독으로 마음의 지혜를 밝힙시다.

금주의 전서봉독은 원불교 예전 '제3 교례편' (p628-659)까지입니다.

교도님들 모두가 마음 챙겨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헌공금 (원기 102년 11월 13일 이후)

강선, 김태영, 김태훈, 박맹수, 박서경, 윤항주, 이의강, 이채산, 장성철, 황원택

합계 : 240,000원

♥ 진학이념 실현에 은혜롭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

발행처 : 원광대학교 대학교당 / 54538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교감교무 : 보산 나상호 / 교무 : 지타원 박덕연 · 양수안 · 최현교 · 남궁현 · 표종인 · 신지겸

전화 : (063)850-5580~4 FAX : 850-5576 http://won.wku.ac.kr

지덕겸수 도의실천



원불교 중립학교 문화조성

제928호

원기 102년 11월 20일 셋째주



- 정전 중 일원상 법어 -

이 원상(圓相)의 진리를 각(覺)하면 시방 삼계가 다 오가(吾家)의 소유인 줄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또는 제불·조사(諸佛祖師)와 범부·중생(凡夫衆生)의 성품인 줄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춘·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보응(因果報應)의 이치가 음양상승(陰陽相勝)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또는 원만구족(圓滿具足)한 것이며 지공무사(至公無私)한 것인 줄을 알리다.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코를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몸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뒀고!

불가의 대표적인 화두 중에 ‘이 뒀고?’가 있습니다.
 모든 화두의 기본으로 봅니다.
 마음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부처도 아닌 이것이 무엇이고?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고?
 부처님 가르침(佛法, 진리)의 참뜻 또는 참 나(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의 나의 본래면목, 나의 참 모습)를 찾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반어법으로 ‘후욕’ 던지는 화두입니다. 이 물음에 다가가기 위해 여러 형태로 꾸미는 수사(修辭)가 있습니다.
 ‘이 뒀고!’란? 진리, 참 나를 찾기 위한 화두입니다.
 ‘이 뒀고’ 화두에 대한 답을 일원상법어에서 하나하나 드렸습니다.
 오늘은 내 손에 잡히는 ‘이뒀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원만구족하다’는 것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두루두루 잘 갖춰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족한다.’ 할 때 ‘滿足’의 원어는 ‘원滿구足’입니다.
 ‘지공무사하다’는 것은 지극히 공정하여 사사로움이 없다. 또는 한편에 치우치는 마음이 없이 공정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공사 구분을 잘 한다.’는 말을 하는데 ‘公私’의 원어가 바로 이 ‘지공무私’입니다.
 진리가 내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때는 ‘참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다’고 합니다. 반면 좋지 않은 결과를 주면 ‘참 불공평하다. 너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기에 친하다고 잘해주고 친하지 않다고 벌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원래...” 라는 말을 씁니다. 그 뒤에는 성격에 대한 것이나 형편에 대한 내용을 덧붙이지요.
 일원상의 수행에서 ‘나의 마음’을 일러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나)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무시선법에서 禪이란 원래에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라 했습니다.
 진리와 참 나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겠지요.

법 회 식 순

사회 : 정성태

◎표시는 일어서서

타 종		주례자
개회		사회자
불전헌배◎	 사회자 안내로	다함께
입정		다함께
독경	 (일원상서원문, 전서 24쪽)	주례자
설명기도 및 심고가◎	 (성가 128장)	사회자
법어봉독	 『정전』 일원상 법어 (전서 25~26쪽)	다함께
일상수행의 요법	 (전서 54쪽)	다함께
설법	 “이 뒀고!”	보산 나상호 교감
다짐심고		다함께
성가	 98장 『사람 되기 어려운데』	다함께
공고		사회자
주간학사일정공고		기획처장
폐회		사회자

법 회 안 내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월요법회	(월) 09:00	대법당	법심향	(수) 12:00 3학년	법전원
호운회	2, 4주 (목) 11:00	3층 소법당		(금) 13:00 1,2학년	선과인격 수련실
원맥회	(금) 11:30	대학선방	원약회 [약대]	(화) 17:30	한의대 선명상실
원경회	3주(금) 15:00	3층 소법당	시리우스 [사범대]	(화) 13:00	자연대 선명상실
원화회	3주(금) 16:00	3층 소법당	선명상반 [자연대]		
의치'한의계열	(목) 17:50	한의대 선명상실	원성회 [군사학부]	(목) 17:30	학부대 선명상실
대학생회	(월) 17:30	동아리방	가락 [학군단]	(수) 17:30	사회대 선명상실
목요선방	(목) 12:00	대학선방	선명상반 [사회대]	(화) 17:30	사회대 선명상실
인문대	(금) 17:30	사회대 선명상실	원심회	(목) 18:00	외국인 교화센터
학생생활관	2, 4주 (화) 19:00	학생생활관 선방	차명상반	(수) 13:30	경영대 선방